

욕망에 의해 성취한 것은 곧 사라지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⑩ 술법의 첫단추를 꿰는 손오공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한자로 술(術) 얘기를 하면서, 음이 같은 술=주(酒) 얘기를 했었죠? 저처럼 한자에 익숙한 사람은 한자로 써야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국한문 혼용 주장을 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자로 되어있는 말이라든가 외래어를 이쁜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말살이가 풍요롭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시리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것을 즐기는 분들, 저는 솔직히 좀 싫어합니다. 저의 한학 스승께서 바로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구요. 한학을 하는 분이 신데도 “알지른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추월(追越)한다’고 쓸 필요가 뭐 있나? ‘유린(蹂躪)한다’는 말의 유린을 한자로 아는 사람 몇이나 돼? 자전 찾아 보면 ‘짓밟을 유’, ‘짓밟을 린’이라고 나오지 않는가? 그럼 ‘짓밟는다’고 쓰면 될 일이지... 쯤쯤...” 하시면서 분별없이 한자 쓰기를 즐기는 풍조를 꾸짖으셨거든요.

그런데 술(術)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어려워요. 술수(術數), 방술(方術)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도 한자말인데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술의 문’이라고 하고 보니 좀 작각이 있었습디다.

앞에서 말했듯이 술(術)이란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유기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방술(方術)이란 말이 적합하겠네요. 술수(術數)라 하면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생각이 나서요. 그런 방술을 들으면 매우 종류가 많겠지요? 감신술, 부적술, 점술, 기타 등등. 그리고 수보리조사님을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쪽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술법을 모두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수보리 조사께서는 손오공에게 첫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저런 술법이 있는데, 너 이거 한번 배워볼래? 이거 배우면 흉한 일 피해서 길한 일만 할 수 있고, 험한 팔 당하는 일 절대 없다. 잘하면 로또 같은 것도 척 당칠될 수 있을지 몰라. 그렇다면 잘먹고 잘사는 일에 지장없지 않겠니? 이거 말이야, 그냥 아무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다. 이거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단다. 거절하느라구 땀까지 흘리고 있지. 어제도 자려고 자질도 없는 애들이 줄줄이 보따리 싸들고 와서 매달리더라. 척 보니까 로또 복권 숫자 짝는데 써먹으려는 녀석들 같아서 그런 거 모른다고 시침떼냐 혼났어. 너야 그런데 써먹으려는 애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생각이 있는데, 배울 생각 있니?”

하~ 이런 식으로 슬 때보는 거죠. 오~ 나칠게 남! 눈이 반짝반짝! 그게 정말이냐구요? 그런 술법을 배우면 로또 복권 당첨 숫자 짝을 수 있냐구요?

예구, 꼭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안갈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두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하면 갈쳐 줄지도 모른단구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어? 정말 짐싸들고 나서 시네.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에요. 서우하주, 수보리 조사님 어디로 찾아가려구 그리 정신없이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젠데요. 무언가 희한한 것을 배워서 한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터무니없는 욕심! 그런 욕심으로 도(道)를 배우려 하면 꼭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기 좋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지하철 속에서 “~~~믿으세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따져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야 나칠게넘처럼 로또라든가 그런거 할려고 한 사람들 아닌데 어째서 같이 취급하느냐구요? 겉보기야 그런 것 같죠. 고상한 신앙에 너무 빠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차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이 있죠. 거기에 어떤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무언가에 매달려서 한번에 모든 문제를 날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예요. 자기의 차분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중압감에 억눌려, 죽자사자 어떤 초월적인 힘에 “절 좀 살려 주세요!”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열심히 죽자사자 매달리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우선은 자신을 모두 내던져 버렸기에 마음이 편해지죠. 포기하거나 체념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좀 더 곤란한 것은 어떤 계시라든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억누르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좋은 일 아니냐구요? 계시를 받는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하는 일을 왜 곤란하다고 하나냐구요? 물론 그 자체가 곤란한 일은 아니예요. 문제는 그런 일을 체험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한 좋은 체험이 독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마음이 집중되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거든요. 쥐한테 물릴 때 “만석!”하고 외치면 정말 만석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쥐한테 물려본 적 없으세요? 여자분들은 쥐만 봐도 질겁을 하는데 물리면 어떻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핏떡 핏 상황에서 “만석!”을 외치는 집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만석꾼 안되겠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쥐에 물릴 때도 부자될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부자 안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매불망 화두를 놓치지 않는 수행자의 경지를 넘어서 그 집념이면 못할



그림 · 최주현

“
 집착하는 마음이 생로병사 근원
 수보리, 술법전수로 손오공 유희
 “죽음 피할 수 있나”라는 대답에
 “원숭이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

일이 없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마음이 집중되고 편해지면 웬만한 병은 낫게 마련입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뭘 먹으면 체기가 쉬운 것처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고(邪敎) 같은 데 빠져서 이상한 주문이라도 열심히 외우면 신기하게 병이 낫는 경우도 있는거죠.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건강한 삶을 통한 차분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통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와! 여기 매달리면 모든 게 되는거구나!”하면서 꼭 빠져 허우적 허우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도 무시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눈빛도 이상하게 변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을 불쌍한 놈들이라고 깔보는 광신병 환자 하나 출생신고 하는거죠.

이야기가 갑자기 사이비 종교 쪽으로 헤맸네요. 이

힘든 세상에서 희한한 방법으로 요리 조리 나쁜 일을 피하고, 한방에 뭔가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서로 비슷하기에 좀 풀어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 술의 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대강 아시겠지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붙여볼까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란 것이 천하명궁 예(?)가 활을 겨누고 있는 앞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과 같단구요. 안 맞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라는 사람이 얼마나 명궁이냐구요? 옛날 옛적 요(堯)임금 때 하늘에 열개의 태양이 떠서 만물이 지글 지글 타는 난리가 났단데요. 그때 활로 아홉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전설적인 천하 명궁이 바로 예입니다. 그런 명궁이 겨누어 쏘려는 앞에 알 쟁거리면서 안맞기를 바라고 온갖 술수를 다한들, 언제까지 피하겠어요? 어떻게 요리 조리 재주를 피워 자잘한 재앙은 피한다 해도, 재앙 가운데도 가장 왕재앙인 죽음의 화살을 결코 피할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잔재주 피우려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고 재앙이 오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큰 마음이 오히려 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수보리 조사는 스물췌 손오공 앞에 이 술(術)의 문을 내밀었네요. 나칠게씨 같은 분이려면 “우와! 바로 이거야!”하면서 덩싹 물었겠지요? 그렇게 되면 술의 문도 제대로 못들어가고 그걸로 끝입니다. “흠~. 이놈은 그릇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한 간장 종지 같은 놈 아니냐? 쯤쯤... 요새 애들은 다 이런가?”하면서 시시껄렁한 잡술 몇가지 가르

쳐 주는 시늉하다가, “오만하면 너한몸 사는데는 지장 없을게다. 그만 집에 가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가 얻은 줄 알고 의기양양해서 집에 돌아가 뒷년 잡술 쓰다 보면 어느날 그 잡술도 영 잘 안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욕망에 의해 성취된 것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있을 때는 잘 되지만, 결국 욕망에 마음이 흐려지면 능력 자체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래 봐도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허풍 떠는 사기꾼 하나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오공이 워면 원숭이입니까? 이런 낚시에 걸릴 리 없죠. 원래의 목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성실한 구도자!

“그걸로 죽음 피할 수 있어요?” 이 물음 한방으로 술의 문이라는 낚시바늘을 날려 버린 거죠. 수보리조사님, “어? 이놈 봐라!” 하시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기쁘셨을까요? 첫번째 낚시에 걸려 버렸다면 또 한번 속으로 땅이 꺼지게 한숨 쉬시며, “왜 이리도 올바로 정신 박힌 놈이 없노~” 하시며 탄식하셨을 겁니다. “흠... 역시 내가 사람, 아니 원숭이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하시는 수보리 조사의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두 이 한번의 시험으로 완전히 통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마도 몇 번 더 낚시를 던져볼 것이 뻔하죠. 대개 영감님들의 의심이 심하고, 특히 뭐가 한다하는 분들은 거기다 좀 조약한 실수보까지 하나 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실수보에서 나오는 다음의 낚시바늘은 무엇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마하연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인도양의 찬란한 빛

구름도 머물다 가는 곳

스리랑카 라오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황주 5일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스미사 5일

인도 9일
 델리-라지푸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인도 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푸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기르-몰리니-키질라비스트-쿠탄-신카시아-아그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티벳 6일
 성도-라싸-암드록초-간제-시가체

티벳핵심하늘일차 8일
 중경-라싸-장제-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일차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
 6. 8인이상 출발 가능

- **스리랑카 완전 일주 8일** 출발일: 매주 일,월,수,금 출발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 6일 요금문의** 출발일: 매주 수요일 출발
- **라오스 6일** 출발일: 매주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출발일: 매주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 여행사 만의 알찬 일정 》